

# 로봇은 묻는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문학 속에 투영된 로봇

인간은 문학 속에서 많은 로봇을 창조했다. 그러나 인간은 창조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자신의 창조물인 로봇으로부터 위협당한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로봇의 질문은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등가를 이룬다. 결국 문학 속의 로봇은 한결같이 인간 사회와 존재를 비추는 거울이다.

로봇은 왜 인간의 상상 속에서 탄생했을까? 로봇의 탄생은 그리스 신화 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크레타 섬의 미노스 왕을 위해 청동으로 만들어진 탈로스가 로봇의 시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유대교에는 흙으로 빚은 인형 고렘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 내려온다. 신이 신을 닮은 인간을 창조했듯이 인간 또한 자신을 닮은 그 무엇을 창조하고 싶어한 것이다. 대홍수가 전 인류를 쓸어가버리고 마지막 남은 남녀 데우칼리온과 피라가 돌맹이를 던져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듯이 말이다.

인간은 상상의 공간인 문학 속에서 자신을 닮은 형상을 수없이 만들어낸다. 그러나 인간이 직면한 새로운 문제는 창조자로서의 의무다. 창조물들은 그들 자신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인간에게 묻는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인간은 로봇의 질문을 통해 거꾸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게 된다.

## 인간다움의 문제를 고민하게 하는 《프랑켄슈타인》

1817년 메리 셸리가 발표한 《프랑켄슈타인》(정혜경 외, 파피루스)은 현대 과학소설의 효시다. 현대 과학소설이 대부분 프랑켄슈타인 서사, 즉 창조자가 창조물로부터 도전을 받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디스토피아적 서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소설의 영향은 지대하다. 또한 이런 프랑켄슈타인 서사는 로봇소설의 주요 틀거리기도 하다.

그런데 프랑켄슈타인이 창조해낸 괴물도 로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소설에서는 영화에서처럼 시체를 이어붙인다거나 양수를 채우고 전기뱀장어로 시체에 전기자극을 줘서 생명을 불어넣는다거나 하는 자질구레한 창조 과정은 생략돼 있다. 프랑켄슈타인은 납골당과 시체해부실, 도살장 등에서 재료를 얻지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인간을 닮은 거대한 체구의 괴물이 되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분명한 것은 괴물이 인간과 똑같은 생체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이 점으로 미뤄보면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은 일종의 생체로봇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켄슈타인은 대학에서 생명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의문을 품게 되고 인간의 몸과 생명을 지닌 생명체를 만들기로 결심한다. 생명이 죽음으로,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연구하던 중 그는 생명의 비밀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그는 생명체를 만들어내지만 자신이 만든 창조물의 끔찍한 모습에 기겁해 그 생명체를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이 소설이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것은 혼자 남은 괴물이 겪은 인간세계의 비인간성 때문이다. 괴물은 자신의 흉측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괴물 취급을 받는다. 인간세계에 모습을 드러내놓고 살 수 없다고 판단한 괴물은 산골짜기 외딴집의 헛간에 숨어 한 가족을 몰래 지켜본다. 괴물은 그들을 관찰하면서 언어를 배우고 글자를 익히고 인간의 감정을 배우게 된다. 그 가족이 고통스럽게 생활하는 것을 지켜보던 괴물은 가족들 몰래 장작을 구해와 그들 집 앞에 쌓아 놓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을 혐오하고 사랑하는 괴물이 정작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들은 괴물을 버리고 도망가버린다. 괴물은 여기서 심각하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자문한다. “나는 누구인가?”

괴물은 결국 창조자인 프랑켄슈타인을 찾아가고 주변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자신을 버린 창조자에게 복수하기 시작한다. 프랑켄슈타인과 맞닥뜨린 괴물은 말한다. “창조자로서 당신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도리를 다하겠소... 살아 있다는 것은 비록 고뇌의 덩어리라 할지라도 내겐 소중한 것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지키고 싶습니다.”

이 소설에서 지은이는 이 소설이 씌어질 당시인 19세기 초 급속한 문명의 발전으로 자연을 정복하고 생명마저 지배할 수 있다고 생

각하는 인간의 이기심과 이성에 철퇴를 가한다. 한편 독자는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감정을 지닌 괴물이 인간 때문에 잔인하게 돌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으로 인간답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심각한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인간답다는 말은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의 언어로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도덕적인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는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

**자본가의 음험한 음모  
드러낸 《로봇(R.U.R)》**

로봇이란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체코 출신의 극작가 카렐 차페크의 희곡 《로봇(R.U.R.》(김

희숙, 길)에서였다. 이 희곡의 영어제목은 《로숨의 만능 로봇(Rossum's Universal Robot)》이다. 로봇은 노동, 부역을 뜻하는 'robota'에서 만들어낸 단어다. 즉 로봇의 원래 의미는 인간 대신 일을 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을 닮은 기계다.

차페크의 희곡 《로봇》의 줄거리는 간단하다. 외딴 섬에 있는 로숨 주식회사는 로숨이 만든 제조 공장과 그의 아들이 만든 생산공장에 따라 로봇을 대량생산하는 곳이다. 인간은 로봇을 노동하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도 사용한다. 어느날 로봇들은 공장 과학자의 실수로 감정을 지니게 되고 인간이 되고 싶어한다. 로봇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몸으로 일하는 건축가 알꾸스뜨를 제외한 모든 인간을 죽인다. 세월이 흐른 뒤 로봇들은 알꾸스뜨에게 로봇의 제조공장을 기억해내라고 요구하지만 제조공장이 적힌 메모는 이미 없어져버렸다. 고심하던 알꾸스뜨는 헬레나와 뿌리무스가 성이 구분되고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는 것을 발견하고 이 새로운 인류에게 축복을 보내면서 세상으로 내보낸다.

차페크의 로봇은 그 어원에서 보듯이 노동자의 비유처럼 보인다. 로봇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읽는 선언문은 “만국의 로봇이여, 우리, 최초의 로숨 유니버설 로봇조합은, 인간이 우리의 적이며 우주의 집 없는 자들임을 선언하노라”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제창한 《공산당 선언》과 닮았다. 차페크는 이 희곡에서 노동자들의 비유인 로봇들을 통해 인간에게 기술진보란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다. 로숨 로봇주식회사 사장인 도민은 로봇들의 반란으로 목숨이 일각에 달렸을 때 열변을 토한다. “고통스럽고 끔찍한 노동. 더럽고 진절머리나는 고역들. 그걸 없애려는 우리의 꿈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난 사람들이 주인이 되기를 바랐던 거요!...난 누구 한사람이라도, 뭔지도 모르는 기계 앞에서 바보가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았다구요.”

그러나 그는 실수를 범했다. 로봇이 노동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을 감안하지 못한 것이다. 도민의 말에는 노동자를 소외시키고 노동에서 벗어나보려는 자본가의 음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인간의 동반자로 로봇 표현한  
아시모프의 《로봇》 시리즈**

차페크의 희곡에 등장하는 로봇은 로봇이란 이름을 얻은 최초의 로

봇들이긴 하지만 어쩐지 어색해보인다. 신경, 혈관, 소화관 등을 만들고 그것을 조립해서 만들어내는 것으로 표현돼 있는데, 나중에 알꾸스뜨가 로봇을 해부했을 때 피를 흘리기도 한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자면 기계로봇보다는 한 단계 진보한 안드로이드로 읽힐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로봇은 희곡이 씌어지던 1920년대로 미뤄보자면 기계로봇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탄생한 로봇이라고 할 수 있다.

중간에 이연도 바인더의 《나는 로봇》이라는 단편이 있었지만, 현대적 의미에서 기계로봇은 아시모프의 《로봇》 시리즈(전6권)(정철호, 현대정보문화사)에 이르러 탄생한다. 그의 로봇은 기계로봇이긴 하지만 이전의 로봇들과는 달리 가장 인간과 가까운 로봇이다. 아시모프는 특히 프랑켄슈타인 우화의 비극적 미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로봇의 3원칙을 만들어 자신의 로봇에 적용한다. 그것은 “제1조 우리들 로봇은 인류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위험을 바 넘김으로써 인류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도록 하지 않는다. 제2조 우리들 로봇은 인류로부터 주어진 명령에 복종한다. 단 주어진 명령이 제1조에 위배될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다. 제3조 우리들 로봇은 앞에서 말한 제1조와 제2조에 위배될 염려가 없는 한 자신을 지킨다”이다.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은 현대 로봇공학자들의 연구 논문 주제가 될 만큼 로봇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로봇의 3원칙이 적용된 아시모프의 로봇들은 인간의 동반자다. 그들은 이 3원칙 안에서만 고민하고 갈등한다. 《로봇》 시리즈 가운데 《강철도시》에서는 형사로도 등장한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자원고갈에 허덕이는 지구에 우주인들이 몰려오고, 일찍이 지구를 떠나 첨단과학과 로봇으로 외계인 행성을 개척해낸 우주인들에 대항하는 반란이 곳곳에서 일어난다. 그곳에서 로봇형사 다닐은 지구의 사복형사 베일리와 사건을 해결한다.

비록 아시모프의 로봇이 인간을 위협하진 않지만, 아시모프가 바라본 인류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 그의 소설들에 묘사된 미래는 삭막하기 그지없다. 자연과 완전히 단절된 세계, 비인간적인 집단사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현실로 묘사된다. 아시모프의 《로봇》 시리즈가 계속되면서 인류는 결국 빙하가 녹아내려 멸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아시모프는 이렇게 위험한 지경에 이른 인간을 위해 로봇의 0원칙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로봇은 인류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되며, 인류를 위험에 방치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아시모프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바이센테니얼 맨》에서 로봇 앤드류는 인간이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로봇의 정체성을 포기한다. 인간의 기억을 지니게 되고 한 여자를 사랑한다. 그러나 그가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죽음, 존재의 소멸이다. 그는 영원히 기계로 살기보다는 인간으로 죽기를 원한다. “왜 죽고 싶은가”라는 판사의 질문에 앤드류는 대답한다.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문학 속의 로봇은 이제 인간의 존재를 진지하게 비추는 또다른 거울로 자리잡는다. —김장근기자